부시 '이라크 정책' 의회·국민 지지 호소

국정연설서 미군 증파·에너지 대책 역설
"한반도 비핵화 위해 외교 집중" 강조

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미 의회와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50분간 계속된 연설에서 이라크전이 실패할 경우 "고통스럽고 광범위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며, 의회와 미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라크 미군 증강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노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 내 다수당이 된 뒤 처음으로 행한 이날 국정연설에서 또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와 의료, 교육, 이민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당파를 초월한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현장 지휘관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가능한 접근법을" 협의한 뒤,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라크 미군 증강이란 대안을 선택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당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의회 내 양당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테러전쟁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 도중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딕 체니 부통령(왼쪽)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는 특히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병력 9만2천명을 늘리도록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물가, 임금 상승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책과 관련, 그는 불법이민자를 방지하되, 기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임시노동프로그램을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반박논평을 통해 "그들이 내놓은 건 전술의 수정에 가깝다"며 "그들은 (이라크) 계획이 없다"고 이라크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라크 미군 2만여명을 늘려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데 대해 압도적인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워싱턴=연합뉴스

日에 한국 연계한 '난자은행' 논란

한국서 난자 채취→체외수정→자궁 이식

일본에서 한국과 연계해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에게 다른 여성의 난자를 판매하는 '난자은행'이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에쿠세렌스'란 상호의 이 난자은행은 난자제공 여성을 한국에 보내 난자를 채취,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아내의 자궁에 이식토록 한다는 것이다. 난자 제공 여성에게는 100만엔의 보수가 주어지는데, 현재 20~33세의 여성 8명이 등록돼 있으나 문의만 있었을 뿐 실제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 판매업도 겸하고 있는 이 난자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 희망자를 모집, 난자 제공자와 면회 를 거쳐 한국으로 함께 건너가 서울 근교의 병원에서 채란, 남편 정자와 체외수정한 뒤 아내의 자궁에 이식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양국에서 생식 비즈니스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병원 소개와 통역 등을 맡게 된다고 신문은 밝혔다.

난자 제공 여성은 신장과 체중, 학력 등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체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또 제공자와 태어날 아이 사이에는 일체의 권리의무 관계가 없음을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부부의 부담액은 임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100만엔 보수에다, 계약금 180만엔, 병원 시술비 30만엔 등을 합쳐 총 400만엔 가량 소요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업체측은 "계약이나 금전의 수수는 일본에서도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자에 이어 난자가 비즈니스의 대상이 된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난자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 살 때가 천국이었다"

적은 월급·비싼 월세·병원비…미국 생활 고달파

美 밀입국 탈북자 심경 피력

"한국에서 살 때가 너무도 행복한 때였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정착해 살다가 미국으로 밀입국한 한 탈북자가 '탈북자동지회'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미국 생활기를 올리며 계획없이 미국으로 오기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편이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끈다.

대화명이 '탈북인'인 이 탈북자는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해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스시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씩 일을 하면서 주급 350달러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160만원을 받았고 관리비나 생활비를 지출해도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적이다 보니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1종이라 너무나도 행복한 때였다"고 한국생활을 회상했다.

그는 "일주일에 350달러를 받아서 방세와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을 저축하느라 한국에서는 끼니마다 가다시피하던 식당 한번 못갔다"며 "음식값이 한국의 두 배"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리가 가려워 긁어대다 보니 염증이 오기 시작해 한인 의사들하고 전화상담을 했더니 수술을 하자고 해서 수술을 했다"며 "그 분들이 요구한 돈이 현찰로 450달러로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현실이었다"면서 미국의 비싼 의료비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서울로 돌아오고 싶어도 임대아파트 등을 처분해 여의치 않다는 그는 "한국에서 공짜로 쓰다시피하던 17평 좋은 아파트를 여기서는 1천달러라는 내 돈을 렌트비로 내야 하고 벌이는 신통치 않으니 어쩌면 좋을꼬…"라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중국에서 바로 미국에 왔더라면 몰랐을 것을 한국에서의 천국같은 생활과 대비를 하다 보니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후회하고 있다"며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제도가 마련된 한국에서의 생활에 그리움을 피력하며 미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에게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다보스 포럼' 개막

2,400여명 참석 북핵 등 토론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다보스 포럼이 24일 스위스 겨울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개막된다.

이날 오후 다보스 컨그레스 센터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 미셸린 칼미-레이 스위스 연방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후 변화를 주제로 개막연설을 한다.

이번 포럼에는 24개국 정상을 비롯해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를 포함한 전세계 각 분야 지도자 2천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최 혁 주제네바 대사 등 정부 고위인사와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28일까지 진행되며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이 주변국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한·중·일 3국의 민족주의 성향과 자원 획득 경쟁이 지역 협력에 미칠 영향을 다루는 회의가 열린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 및 한반도 주변 지역 안정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 등에 대한 별도의 토론도 진행된다. /다보스=연합뉴스

헤즈볼라, 한국군 파병 '조건부 환영' 밝혀

헤즈볼라는 23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 한국군이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으로 배치되는 것에 '조건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레바논 남부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헤즈볼라가 한국군의 UNIFIL 참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셰이크 후도르 누르엣딘 헤즈볼라 정치국 위원은 23일 연합뉴스와 한 회견에서, 한국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레바논 군을 도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레바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누르엣딘 위원은 한국군이 주둔할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티르(수르)에 한국군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한국군을 우리의 손님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로=연합뉴스

佛 첫 여성 대권 도전, 루아얄 후보

이번엔 加 내정간섭 발언 '곤욕'

프랑스 첫 여성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가 이번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로부터 국내 문제에 간섭했다는 반발을 사는 등 '외교 실언'으로 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루아얄은 지난 달과 이번 달 레바논과 중국 방문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들으며 역시 외교 역량이 부족한 '경량급' 인사란 지적을 받았었다.

22일 새롭게 문제가 된 루아얄의 발언은 불어 사용 지역인 캐나다 퀘벡주의 분리 독립 사안이다. 루아얄은 캐나다로부터 분리를 원하는 퀘벡당의 지도자 앙드레 부아클레르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퀘벡이 주권과 자유를 포함한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에 민감한 사안인 퀘벡의 독립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외국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민주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행위란 점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며 반박했다. /파리=연합뉴스

카차브 이스라엘 대통령 성폭행 혐의 기소 초읽기

모셰 카차브 이스라엘 대통령이 성폭행 혐의로 곧 기소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법무부가 23일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법 당국은 카차브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일해온 여직원 4명을 성폭행한 의혹과 관련, 유죄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메나헴 마즈즈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카차브 대통령에게 사임을 권유했었으나 카차브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오히려 공갈협박의 희생자라고 주장해왔다.

카차브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에제르 바이츠만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사임한 후 의회에 의해 대통령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전액무료 국비훈련생 모집

모집직종	정보통신설비
모집기간	2007년 1월 16일부터(30명 정원 한도내 선착순 모집)
취득자격	정보통신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집대상	-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야간대학(방통대 포함)·야간대학원·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 - 취업보호대상자 - 비진학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모자보호대상자 - 장애인 - 일반주부(3개월전에 구직등록한 주부) 전액무료
특 전	- 수강료 전액 무료 - 교재 무료 제공 - 교통비 지급(매월 50,000원→6개월 총 300,000원) - 우선선정직종수당 지급 (매월 200,000원→6개월 총 1,200,000원) -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련분야 100% 취업
모집방법	학교교무실 상담 및 방문(건강보험카드 지참)
문의전화	224-4560, 224-4580
버스노선	• 전남여고 봉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 문화전당역(구 도청) 진월07, 첨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 예술의 거리 입구 풍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위치: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內 ★http://www.hdedu.co.kr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개강 2월1일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3000여명 모집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교정직 특채 2007년 3월~5월중 실시 800여명 모집예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지방직대비 공무원
개설직종 : 행정직, 고등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기술직
9월 교정직특채 800여명 선발 2007년 상반기
한빛슈퍼파워팀 - 9월 문제풀이 한빛이 하면 多검린다!
한빛공무원학원 개강▶2월1일 (홀/짝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

회사소개
저희 Biothys Asia는 유럽 제일의 악취제거 전문 연구개발 회사인 프랑스 Biothys Gmbh와 라이센스 및 원천기술이전 협의서를 체결하여 기술제휴한 악취제거 전문회사입니다.
국내 전 산업분야의 악취 및 빌딩, 호텔, 병원, 철도,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매립장 등 위생시설, 농축산업 등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생산 및 개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독점 판매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종류
■산업용(화학공장, 석유화학공장, 식품가공공장,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등)
■준산업용(호텔, 모텔, 공공건물, 철도, 지하철 등)
■사무실용 ■가 정 용 ■노인병원

제품특성
■악취제거
■세계특허
■천연식물성 오일, 인체에 무해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
Biothys Korea가 열어갑니다
대리점 모집

대리점	광주/전남·북 및 각 지역별
취급점	점포소유자로서 상품진열 판매가 가능하신 분
남·여영업직	건전한 사고로 활동력이 왕성하신 분 (보험영업, 타영업해 보신 주부 환영)

"새집 냄새제거 완벽시공"

Biothys Asia OLFACTIVE SILENCE 대표전화 (062)531-3377, 339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2-12(동림B/D 2F)
■광주점 062)523-3939 ■순천점 061)744-6789 ■여수점 1577-0353